

2022년 이사장 신년사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새해는 온 국민에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선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해양교통안전이라는 원대한 목표의 크고 작은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성장의 시기를 굳건히 견뎌내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해를 돌아보며 올 한해 할 일을 세어보니, 희망이 샘솟으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취임 첫해는 긴 항해를 대비해 우리가 쫓아야 할 나침반을 점검하고 가장 올바른 방안을 모색한 시기였습니다.

저의 취임 첫 소감은 우리 공단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신공단 설립 3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공단 설립법의 제정, 전문인력의 확충, 우리나라 해양사고 감축을 미션으로 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의 구축 등 엄청난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음을 상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선, 취임 당시 약속드렸던 사람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열린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우리 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기관이 제안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대응, 신공단 출범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분장 개선, 코로나19로 급감한 수입 대책, 그 외 승진 적체, 평가제도 개선, 열악한 직원 주거복지 등 산적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공단과 우리 임직원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방향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임직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것처럼, 밝은 내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공단 출범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전략체계와 개편한 조직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 공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희망차고 담대한 여정에 우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단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부분으로,

먼저,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사고예방 기술 등 각종 기술력을 고도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굳건한 해양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 나갑니다.

둘째,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단이 계속해서 추진해 온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지원 사업, 선박 부문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전기 추진어선 개발 연구,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스템 개발 등에도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셋째, 현장 맞춤형 해양안전 체제 구축과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온힘을 다합시다.

올해는 인천과 목포의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마침내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공단 본부에 여객선 운항상황센터를 구축하고 3월 초 공단 당진 지사도 새로이 설립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공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안전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다양한 해양안전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공단의 인력운용 등 노사가 협력할 많은 일들이 더 있습니다.

연초에 개편한 조직은 올해 대선과 1년 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하면 금년 말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새로 제산된 정원은 선박검사 이동시간 등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산정한 후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를 줄여나갈 연차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보, 평가, 승진은 금년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 범위반으로 평가되는 임금피크제와 공로연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은 더 새로운 대안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올해 ESG 경영의 고도화를 통해 신규 사업의 발굴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성과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낮아진 경영평가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한해 원만한 노사협의를와 상생화합에 애써 주신 우리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공단의 내실도 그만큼 단단해 집니다. 여러분이 씬 없이 달려온 그 길 위에, 공단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올 한해도 위기를 기회로 키워내며 공단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올 한해 뜻한바 모두 이루시는 귀한 2022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정석